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6. 7. 1.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주 품에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2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코러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30장 37~43절

다 같이

37.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평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 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
39.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40.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 튼튼한 양이 새끼 뱌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42.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이나 무임금에 가까운 고된 노동을 하며 성실하게 봉사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가정을 위해 품삷을 정하려 하자, 욕심 많은 라반은 야곱의 뉘이 될 확률이 희박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만을 야곱의 품삷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책을 세웁니다.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 양 떼 앞에 두는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합니다. 야곱이 나뭇가지를 이용한 방책은 당대의 목축 경험과 민간 상식을 총동원한 인간적 노력의 산물이지만, 궁극적으로 야곱을 거부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억울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살펴볼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최선을 다하는 태도

야곱은 라반의 불의한 계약과 속임수 앞에서도 낙심하여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본문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평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여기서 '버드나무'는 포플러 나무, '살구나무'는 알몬드 나무, '신평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뜻합니다. 야곱이 이 푸른 가지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낸 것은 단순한 미신적 행위라기보다, 오랫동안 양을 치며 쌓아온 목축업자로서의 유전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라반이 원천적으로 야곱의 뉘을 차단했음에도, 야곱은 자신이 가진 한계 안에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상황이 불공평하게 돌아갈 때, 성도는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름이 아닌, 땀 흘리는 성실을 통해 일하십니다.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다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믿음의 시선과 영적 집중력

야곱은 나뭇가지를 아무렇게나 던져 두지 않고, 양 떼가 가장 집중하고 힘을 얻는 자리에 정확히 배치했습니다.

본문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 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

'물 구유'는 양 떼가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력을 얻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것은 가축들이 물을 마시며 가장 활력 있고 흥분된 상태에 있을 때 이 흰 무늬 가지들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시각적 자극을 극대화하려 했던 야곱의 영악할 정도의 치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 구유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으로 이 땅의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과 비슷합니다. 야곱의 영적 갈급함이 점점 하나님께 미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삶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 구유'와 같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세워 두고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될 때, 그곳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셋째, 인간의 지혜 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야곱은 튼튼한 양과 약한 양을 구별하여 지혜를 짜내었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야곱을 번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41~43절, “튼튼한 양이 새끼 뱌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본문 43절의 ‘매우 번창하여’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 ‘파라츠 메오드 메오드(פָּרַץ מְאוֹד מְאוֹד)’에서 ‘파라츠’는 ‘독이 터지듯 폭발적으로 증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과학적으로 나뭇가지를 보여 준다고 해서 얼룩무늬 양이 폭발적으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후 창세기 31장에서 야곱 스스로 고백하듯, 이것은 하나님이 꿈에 보여 주시고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간섭’이었습니다. 야곱의 미약한 피와 수단을 도구 삼으셔서, 라반의 불의를 심판하시고 야곱에게 공의로운 보상을 내리신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지만, 그것을 ‘폭발적인 은혜 (파라츠)’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셨습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내 수고 위에 복을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야곱은 비록 완전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꾀를 부리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베델에서 흘렸던 눈물의 기도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사흘 길을 떼어 놓고 품삷을 열 번이나 바꾸며 야곱을 빈손으로 만들려 했을지라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독을 터뜨리시듯 복을 부어 주시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울함이 있습니까? 내 손에 쥔 것이 버드나무 가지처럼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야곱처럼 최선의 성실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은혜의 구유에 고정하십시오. 인간의 미약한 방책 위에 역사하셔서 마침내 ‘심히 풍부하게’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걸음마다 풍성한 열매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

눔

다 같이

1.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 내 수고 위에 복을 더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3. 이번 주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중 보 기 도

큰빛은혜교회를 위해

다 같 이

1.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2.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3.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 주고 섬길 수 있도록
4.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미래의 영적 리더로 서도록
5. 다음 주 부흥회를 통해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수고와 연약한 지혜 위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